

50+세대 고독사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과 사회적 해법 방안 연구

안인숙, 유기종, 이영철, 이홍주

001

50+세대 고독사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과 사회적 해법 방안 연구



안인숙 유기종 이영철 이흥주

책임연구원

안인숙

前 오름대안학교 교사

공동연구원

유기종

아프리카아시아 교육후원회(사)

이영철

한국직업진로아카데미 대표

이흥주

한국직업진로아카데미

요 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50+세대의 고독사 증가는 경제활동 인구 측면에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와 국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현상으로 실태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법방안 제시가 요청된다.
- 고독사의 개념 정의
- 고독사의 실태 파악과 이를 증가시키는 요인 분석
- 고독사의 입법정책, 지자체의 조례분석과 사회적 해법방안 모색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고독사의 정의와 연관된 독거사, 고립사, 무연사, 비존엄사 개념들의 연관성을 살펴본다. 이와 관련된 서울특별시 기초단체의 고독사 조례내용 분석과 금천구 지역 50+세대 1인가구의 개방형 설문분석과 현장실무 활동을 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현실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고 선행문헌연구와 국가통계 자료, 인터넷 미디어 매체 자료 등을 통해 사회적 해법방안을 모색한다.
- 연구방법
 - 고령화 진입에 따른 고독사에 대한 국내외 선행 문헌 연구
 - 서울특별시 예방대책과 기초자치단체 고독사 조례 분석

- 금천구의 50+세대 1인가구 설문조사와 사회복지사들의 인터뷰 실시

3. 50+세대 고독사 증가요인과 해법방안

○ 우리나라의 고독사는 고령사회에서 일반화된 노인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50+세대에 더 큰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 요인은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 경영환경 변화로 고용불안 및 경제여건 약화로 50+세대 조기 퇴직자 발생과 사회안전망 부재로 쉽게 고독사 환경으로 진입하고
- 사업악화로 인한 휴업/폐업으로 인해 50+세대가 고용시장으로 진입하면서 경제적 가치상실로 인한 1인 가구 증대와 사회안전망 붕괴가 증가요인으로 분석되었다.

○ 50+세대 고독사는 어느 기관이나 개인에 의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국가, 기업, 사회 모두가 해법방안에 참여해야 한다.

- 조기퇴직에 대한 문제
 - 임금피크제, 의무고용제 확대와 전직경력을 활용한 제2의 일자리 연계 방안 연구
 - 고독사 조례의 수급 적용대상 확대 (만 65세 -> 50세)
- 사업악화로 인한 휴업/폐업으로 인한 고용시장 진입
 - 재도전할 수 있는 비용지원 체계 구축
 - 타 분야로 전환할 수 있는 교육지원 프로그램과 환경 구축
- 고독사 진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수급시기의 유연성 확보도 연구 검토되

어야 할 문제이다.

- 고독사 증가 추세는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으나 지금은 세계 글로벌 경제의 악화로 인한 경영여건의 악화와 복잡한 사회적 문제로 그 추세는 전 연령대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회관계망 확충과 예방대책이 더욱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다.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2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4
1. 연구의 내용	4
2. 연구의 방법	5
제2장 현황 및 이론	7
제1절 연구 내용 및 이론	7
1. 고독사의 개념 정의	7
2. 고독사의 이해	9
제2절 고독사의 이론	17
1. 고독사의 구성요소	17
2. 50+세대 고독사 현황	19
제3장 연구 결과	21
제1절 50+세대 고독사 증가 요인	21
1. 퇴직자 실태 현황	21
2. 기업부도업체 현황	25

3. 서울시 고독사 실태분석	27
제2절 50+세대 1인 가구 설문 분석	31
1. 50+세대 고독사 설문조사	31
2. 설문조사 분석의 한계	45
제3절 고독사 관계자 인터뷰 분석	46
1. 고독사 돌봄 사회복지사 인터뷰	46
제4절 고독사 입법 현황 분석	55
1. 조례 입법 현황.....	55
제4장 정책 제언	61
제1절 50+세대 고독사 증가요인	61
1. 조기퇴직과 사업악화(휴업, 폐업, 실직)	61
2. 고독사 조례 법안	64
제2절 고독사 요인별 해법방안	66
1. 고독사 증가 요인별 해법방안	66
참고문헌	68

표 목차

[표 2-1]	연구보고서의 개념 정리	10
[표 2-2]	무연고 사망자 처리현황(시도 별)	13
[표 2-3]	연도별 비존엄사(자살) 현황	14
[표 2-4]	2016년 자살원인(동기)별 자살현황	15
[표 2-5]	전국(시/도별) 연령표준화자살률(인구 10만 명당)	16
[표 2-6]	2018년 연령별 남성 무연고 사망자 현황	20
[표 3-1]	서울시 연도별 퇴직자 현황	22
[표 3-2]	금융권 명예퇴직과 퇴직조건	23
[표 3-3]	연도별 기업부도 현황	26
[표 3-4]	서울시 고독사(확실+의심) 지역별 연령분포	27
[표 3-5]	자치구별 고독사(확실+의심)발견 주거 특성	29
[표 3-6]	설문응답자 인적사항(전체)	32
[표 3-7]	설문응답자 인적사항(남성)	32
[표 3-8]	설문응답자 인적사항(여성)	33
[표 3-9]	금천구 지자체50+세대 설문조사 내역 요약	34
[표 3-10]	50+세대 고독사 증가요인 설문 분석(전체).....	35
[표 3-11]	50+세대 남성고독사 증가요인 설문 분석	37
[표 3-12]	50+세대 여성고독사 증가요인 설문 분석	39
[표 3-13]	50+세대 1인 가구 고독사 해법방안 설문 분석	40
[표 3-14]	50+세대 1인 가구 남성 고독사 해법방안 설문 분석	42
[표 3-15]	50+세대 1인 가구 여성 고독사 해법방안 설문 분석	44

[표 3-16] 고독사 돌봄 사회복지사 인터뷰 내역 요약	47
[표 3-17] 서울특별시, 지자체 입법내용 현황	56
[표 4-1]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 근무기간	62
[표 4-2] 50+세대 고독사 증가요인 별 해법방안	66

그림 목차

[그림 1-1] 고독사 발생경로	3
[그림 2-1] 고독사와 유사개념과의 관계	9
[그림 2-2] 젊어지는 고독사 한해 사망 1,700명 중 46%가 4050세대	12
[그림 2-3] 연령별 1인 가구 혼인 상태	17
[그림 2-4] 서울시 고독사 연령대 별 현황	19
[그림 3-1] 최근 3년 간 고용변동 정리해고 신고 현황	25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1) 문제 제기

- 고독사란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경제적 빈곤, 가족부양, 질병 등의 문제로 혼자 살다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를 말해왔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50+세대에서 더 많은 증가 추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2) 50+세대 고독사 환경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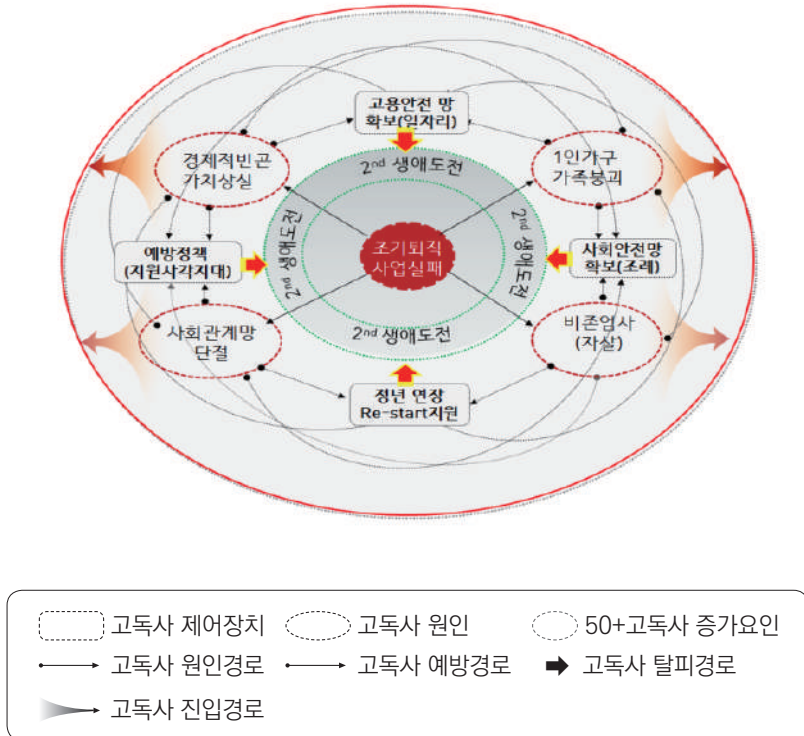
- 사회적 안전망이 마련되기 전에 50+세대의 급격한 증가 추이 발생한다.

- 국가 예방정책과 지방자치제 조례 안전망이 노인(만 65세 이상)에 집중되어 있다.
- 사회적 환경변화로 복합적인 사인의 원인을 포함하고 있다.
 - 독거사, 고립사, 무연사, 비존엄사 등의 복합적 특성이 있다.
- 50+세대 고독사 조례 사각지대 대응 방안 확충이 필요하다.
- 50+세대 고독사는 기업과 정부 사회가 동시에 대응해야 할 사회적 문제 접근이 필요하다.

2. 연구의 목적

- 고독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고령화 사회에서 경험하게 되는 보편적인 개념이나 우리나라에서는 50+세대에서 노인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추이를 보임으로써 입법 정책과 실태분석을 통해 사회적 해법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 50+세대의 고독사 증가는 경제활동, 사회적 비용 증가 등 그 영향력이 매우 크다.
 - 고독사의 개념 정의
 - 고독사의 실태 파악과 이를 증가시키는 요인 분석
 - 고독사의 예방정책, 지자체의 조례분석과 사회적 해법방안 모색

[그림 1-1] 고독사 발생 경로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1) 선행 연구 고찰

(1) 고독사의 개념 정의

- 고독사는 그 말 자체 의미만을 보면 외로울 고(孤), 홀로 독(獨), 죽을 사(死)로 혼자 외롭게 죽음을 맞이한다는 의미를 말한다. 고독사 정의를 위해서 독거사, 고립사, 무연사, 비존엄사(자살) 등에 대한 유사 개념들에 대한 연관성을 살펴본다.

(2) 50+고독사의 실체와 요인분석

- 우리나라의 고독사는 노인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50+세대에 더 큰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 경제 환경 변화로 고용불안 및 경제 여건 약화로 50+세대 조기 퇴직자 발생으로 인한 문제
 - 사업 악화 또는 실패로 인한 미혼, 비혼, 개인주의 심화 원인에 따른 가족 붕괴로 1인 가구 증가
 - 독거와 고립으로 인한 상실감 증대, 사회안전망 부재 등 복합적 요인이 내재 되어있다.

2) 고독사의 예방정책과 지방자치제 조례

(1)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조례

- 서울특별시를 고독사 예방정책과 기초자치단체 조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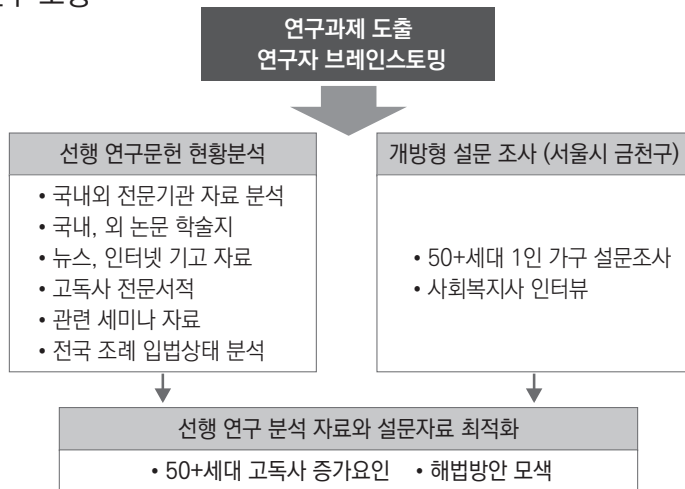
- 고독사 예방정책과 고독사 조례의 입법화 여부
- 조례의 지원대상과 내용 등

(2) 사회적 해법방안 모색

- 국내의 고독사 대응 방안 입법 예방정책 및 조례 실태를 분석한다.
 - 고독사에 대한 예방정책 및 기초자치단체 조례 내용 분석
- 서울시 금천구 50+세대 1인 가구의 개방형 설문조사와 사회복지사 인터뷰 실시한다.
 - 고독사 증가요인과 해법 방안 조사
- 사회복지안전망에 대한 문제점 및 정책적 해법 방안 제시한다.

2. 연구의 방법

1) 연구 모형



제2장 현황과 이론

제1절 연구 내용 및 이론

1. 고독사의 개념 정의

1) 고독사의 개념

- 고독사는 그 말 자체 의미만을 보면 외로울 고(孤), 홀로 독(獨), 죽을 사(死)로 혼자 외롭게 죽음을 맞이한다는 의미를 말한다.
 - 사망 후 시신을 인도할 사람이 없는 경우
 - 사망 후 며칠 후에 발견되는지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다(3일, 7일)
- 고독사는 다음 몇 가지 유사개념을 포함한다.
 - 독거사, 고립사, 무연사, 비존엄사(자살)

2) 고독사의 정의

○ 관점의 차이는 있으나 고독사 정의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 고독사에 자살 포함 여부
- 사망 후 발견된 일자를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음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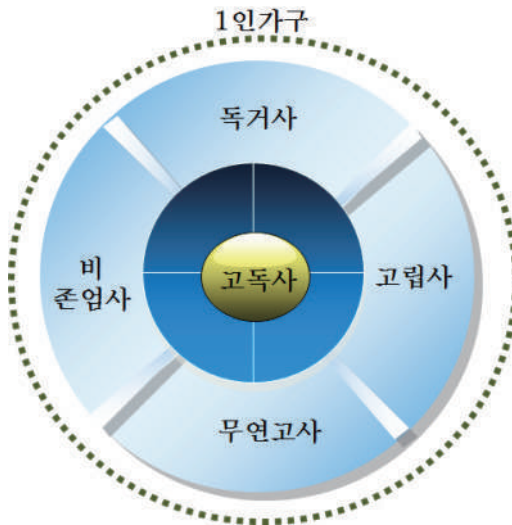
고독사란 가족, 이웃, 친구 등 주변 사람들과의 왕래나 연락이 없는 상태에서 혼자 살다가(독거, 1인 가족 등) 홀로 죽음을 맞이하여 사망 후 일정 기간(약 3일)이 경과하여 방치되었다가 발견된 죽음의 경우를 말한다.

- 본 정의의 함의는 무연고사, 독거사, 고립사, 비존엄사를 포함한다.
- 사망 후 3일은 서울복지재단 연구 기준(장례 일자 3일)
- 사망 후 무연고로 시신을 인도할 사람이 없거나 연고가 있어도 시신 인도를 포기한 경우

2. 고독사의 이해

1) 고독사의 유사개념 및 특성

[그림 2-1] 고독사와 유사개념과의 관계



* 출처 : 서울시복지재단 고독사 실태파악 및 지원방안 연구 참고(2016-12)

(1) 독거사(獨居死)

- 독거사란 혼자 취사나 취침 등의 생활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나 생활 단위를 말한다. 통계청, 조례, 연구보고서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표 2-1] 연구보고서의 개념 정리

구분	개념	비고
통계청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 즉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살림하는 가구, 즉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의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	통계청, 2015
조례	1명이 단독으로 취사, 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단위	서울시, 2016
	1명이 단독으로 취사, 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단위	부산시, 2016
연구 보고서	1인이 독립적으로 위사 및 취침 등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	이민홍 외, 2015보건복지부
	실제적으로 혼자 생활하는 가구	변미리외(2015) 서울시 의회
	일반가구 가운데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식사 취침 등 일상적인 생활 및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구	최현수 외(2016) 보건복지부
	법적 배우자가 존재하더라도 혼자서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1인 가구	장진희 외(2016)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2016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가구 형태 중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크다.
- 2015년 31.9%, 2035년 34.6%, 2045년에는 36.5%로 3가구당 1가구 예상
- 외국의 경우 가장 높은 나라는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로 평균 가구의 40%이며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연평균 1.57% 증가율로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국가로 전망

○ 1인 가구 급증과 생활 변화

- 사회 환경 변화와 경제적 여건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
 - 중년 이혼, 고령화 증가로 가족가치 약화(28.8%), 개인주의 심화(23.6%), 비혼자 증가(23.0%), 고용불안 및 경제여건 약화(20.3%), 순서를 보임

○ 중·고령층의 1인 가구의 비율

- 사회 가족 가치 약화(31.4%), 개인주의 심화(26.7%) 등 가치관의 변화를 주된 원인으로 파악되었다.(국민권익위원회, 2014)

1인가구의 증가는 가족가치, 개인주의, 가치관 변화 등 독거사의 원인

(2) 고립사(孤立死)

○ 사회적 고립의 개념

- 타인으로 부터의 분리된 상실감으로 버림받은 느낌과 비애를 초래하고 절망 속으로 이끌려 간다.
- 사회적 고립 정의를 위한 고려사항
 - 사회적 범위 : '사회'이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며 개인들이나, 가까운 친구,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사회, 더 나아가 사회까지 확대하여 말 할 수 있다.
 - 자발성 문제 : 스스로 선택한 경우 사회 관여는 자유 침해로 주의를 요하기때문에 비자발적으로 강요된 경우에 한해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3) 무연사(無緣死)

- 무연사란 고독사에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시신을 인수할 사람이 없는 경우나 만약, 가족이나 지인이 있어도 시신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말한다.
 - 연고의 유무가 아닌 사망 후 시신 인수 유무를 말한다.
 - 무연사는 무연고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 고독사의 통계를 일반적으로 무연고 사망자 처리 통계를 대신한다.
- 무연사 실태
 - 서울복지재단(송인주 연구위원) 조사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1,717명 고독사로 분석되었다.
 - 20대 32명, 50대: 499명, 60대 305명, 40대 292명, 70대 157명으로 50대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
 -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제외되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림 2-2] 젊어지는 고독사 한해 사망 1700명 중 46%가 4050세대



* 자료출처 : 2019. 03 매일종교신문

○ 전국 무연고 사망자 현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실 2018. 2. 18 보도자료)

- 연도별 사망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 2013년 1,280명, 2014년 1,389명, 2015년 1,679명, 2016년 1,832명

- 50+세대 별 사망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 60 ~ 64세 : 2013년 162명, 2014년 197명, 2015년 239명, 2016년 272명, 2017년 29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4년간 82.7%나 크게 증가
- 50대 : 2013년 338명에서 2014년 344명, 2015년 432명으로 증가한 후 2016년 421명으로 줄었다가 2017년 509명으로 다시 증가

[표 2-2] 무연고 사망자 처리현황(시도 별)

(단위: 명)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280	1,389	1,679	1,832	2,010
서울	462	477	536	567	516
부산	60	86	113	135	137
대구	47	32	90	78	116
인천	97	94	137	160	180
광주	12	14	18	21	27
대전	39	40	51	61	38
울산	21	18	28	26	39
세종	2	2	2	3	0
경기	222	276	297	325	399
강원	41	38	54	67	73
충북	24	27	34	52	61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충남	52	41	47	60	78
전북	33	24	30	40	40
전남	25	56	30	41	52
경북	45	52	69	61	90
경남	52	65	87	109	103
제주	46	47	56	26	61

*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2018. 02 최도자 의원실)

(4) 비존엄사(자살)

- 50+세대는 사회, 경제적 변화 속에 노후준비 없이 삶의 터전이 와해되고 조기 은퇴로 인한 상실감과 가족해체로부터 비존엄사가 증가되었다.
- 비존엄사 현황분석(2019. 6. 11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2017년 통계기준)
 - 본 자료는 전체 비존엄사(자살)에 대한 현황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7년 사망자 수는 12,463명으로 전년 대비 629명(-4.8%) 감소하였고, 1일 평균 자살 사망자 수는 34.1명, 연도별로는 2011년도에 크게 증가함.
 - 성별로는 80대 이상 남자에서 큰 비중을 보였으며 고령화 시대 현상으로 예측된다.
 - 직업별로는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무직, 학생, 가사 분야도 큰 분포를 보이고 있다.
 -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가장 많은 발생률을 보였다.

- 자살동기는 정신과적 분야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심리적인 정서문제도 많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며 경제적인 문제, 가정문제 순으로 나타난다.
- 전국 연령표준화자살률(인구 10만 명당)은 충남이 크게 조사되었다.
- 최근 OECD 회원국 자살률은 리투아니아, 한국 순을 보이고 있다.

[표 2-3] 연도별 비존엄사(자살) 현황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자살 사망자 수	15,412	15,566	15,906	14,160	14,427	13,836	13,513	13,092	12,463
자살률(%)	31.0	31.2	31.7	28.1	28.5	27.3	26.5	25.6	24.3

*자료출처 : 중앙자살예방센터 <http://spckorea-stat.or.kr/korea01.do>

[표 2-4] 2016년 자살원인(동기)별 자살현황

자살원인(동기)	자살 사망자 수	비율
가정문제	1,162	8.9
경제생활문제	3,043	23.4
남녀문제	429	3.3
사별문제	108	0.8
육체적 질병문제	2,768	21.3
정신과적 문제	4,713	36.2
직장 또는 업무상의 문제	514	3.9
학대 또는 폭력문제	3	0.0
기타	172	1.3
미상	108	0.8
전체	13,020	100.0

* 자료출처 : 중앙자살예방센터 <http://spckorea-stat.or.kr/korea01.do>

[표 2-5] 전국(시/도별) 연령표준화자살률(인구 10만 명당)

시도	연령표준화 자살률 (인구 10만 명당)	시도	연령표준화 자살률 (인구 10만 명당)
서울	18.1	강원	23.0
부산	22.4	충북	23.2
대구	21.3	충남	26.2
인천	21.0	전북	23.7
광주	20.6	전남	20.2
대전	20.1	경북	21.3
울산	22.3	경남	21.1
세종	16.6	제주	22.9
경기	20.1		

* 자료출처 : 중앙자살예방센터 <http://spckorea-stat.or.kr/korea01.do>

제2절 고독사의 이론

1. 고독사의 구성요소

고독사의 원인 분석을 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통해서 구체적인 고독사 구성 요소로 1인 가구, 주변 관계, 사망원인, 사망 장소, 시신방치에 대해 살펴본다.

1) 1인 가구

- 고독사 발생은 고령화 사회에서 병사로 인한 고독사가 일반화되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고독사는 1인 가구로부터 고립화되고 무연고나 이웃과의 교류 단절 상태가 고독사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 50대 1인 가구 중 38.4%(이혼), 15.8%(사별), 22.0%(미혼), 40대는 56.3%(미혼), 이혼(23.3%), 1.9%(사별)로 50대는 이혼, 40대는 미혼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 (이여봉 강남대 교수) 1인 가구의 현황과 정책과제

[그림 2-3] 연령별 1인 가구 혼인 상태

연령대별 1인 가구 혼인 상태					
2015년 인구총조사 기준, 단위: 만명, %					
	미혼	이혼	사별	배우자 있음	합계
30대	71만8000	3만6000	1000	6만8000	82만3000
(비율)	87.2	4.3	0.2	8.3	
40대	42만8000	17만7000	1만5000	14만	76만
	56.3	23.3	1.9	18.5	
50대	18만9000	33만	13만6000	20만5000	86만1000
	22.0	38.4	15.8	23.9	
60대	5만9000	19만4000	37만5000	10만7000	73만5000
	8.0	26.4	51.1	14.5	
70대 이상	2만3000	7만1000	100만4000	5만6000	115만4000명
	2.0	6.1	87.1	4.8%	

* 자료출처 : 하늘문화 (2018. 09.30) <http://www.memorialnews.net/news/article.html?no=11229>

2) 주변관계

- 주변관계는 고독사에서 고립상태를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으로써 주변 이웃이나 가족 간에 교류가 전혀 없는 상태로 사회적 고립으로부터 위급한 순간에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어 사망한 후에도 시신이 발견되지 않는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3) 사망원인

- 사망원인이 고독사를 결정하는데 주요 요소 중에 하나가 된 이유는 전문가들 간에 자살 여부를 고독사로 볼 것인가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고독사로 볼 것인가에 대한 이견이 있다.
 -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르면 고령화 질병으로 인한 사망 즉, 영양실조와 같은 급성 병적 상태로 이르는 사망은 고독사의 유사개념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고독사의 구성요소로 포함하지 않는다.
 - 자살에 이르게 된 여러 조건들을 감안하여 고독사 위험군에 자살을 염두에 두고 한정적으로 고립이나 경제적 문제로 인한 자살을 고독사의 구성요소로 포함한다고 하였다. (고독사 예방 정책방안 연구, 최지연, 2018)

4) 사망 장소

- 고독사에 사망 장소를 포함시키느냐 여부에 반드시 주거지(집)으로 국한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5) 시신방치

- 시신방치를 고독사의 구성요소에 포함시키는 데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양하다. 시신방치 기간은 1주일로 보느냐 3일로 보느냐는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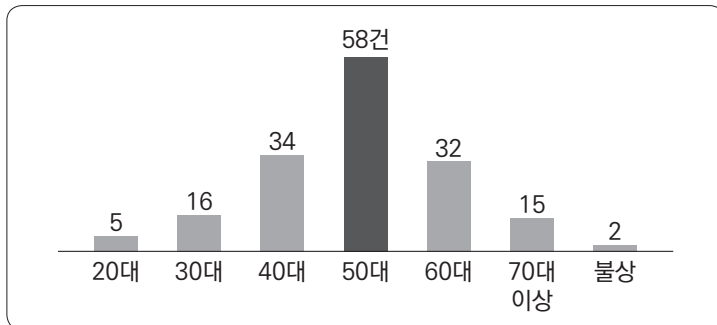
이 있으나 공동된 의견은 사망 후 며칠의 기간이 지난 경우를 말한다.

- 시신 방치 후 1주일로 보는 경우는 부패하여 악취가 발생하여 발견하는 기준으로 보았고 3일을 주장하는 전문가는 3일 장례를 기준으로 하였다.

2. 50+세대 고독사 현황

- 고독사가 50대 중장년의 고독사가 위험집단으로 등장한 요인에는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조기퇴직, 사업실패로 인한 1인 가구 증가, 사회 경제적인 변화에 쉽게 노출되면서 그로 인한 심리적 좌절과 사회 적응의 어려움 등을 들 수 있다.
- 서울시 연령대별 고독사 현황을 보면 서울시 인구 50대(159만 3천 805명), 30대 (176만 3천 451명)인데 비해 고독사는 2배 이상 된다.

[그림 2-4] 서울시 고독사 연령대별 현황



* 출처 : 서울복지재단 '서울시 고독사 실태파악 및 지원 방안 연구'(2016)

- 고독사가 많은 이유는 1인 가구의 증가와 세대 공동체, 사회적 관계망 해체되면서 응집력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 무연고 사망자 2017년 대비 27.5% 증가한 2,549명(2015년 이후

지속적 증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2018. 4. 김승희의원)임

-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고용동향에서 한국 남성의 일자리 퇴직 연령은 2016년 기준 51.6살로 50대 높은 고독사에 치명적인 요인이다.
- 경제적 갈등으로 인한 가족 단절과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로 진입하여 비존엄성 죽음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죽음이 된다.

- 중장년의 고독사 증가는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50+세대의 조기퇴직(명예/희망)과 사업 악화로 인한 실직으로 증가되었다고 분석되었다. 사회복지 안전망이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기퇴직(2016년 기준 51.6세)으로 경제력 상실로 인한 절대다수가 남성에 집중되어 있다.
 - 경제력 상실로부터 자신의 존엄가치 상실로 사회적 고립상태 발생
 - 국민연금 수급시기 까지 10여 년의 기간에 대한 일자리 대책 부재
 - 개인화로 인한 공동체 의식 붕괴로 고독사 위험군 진입
 - 신자유주의 등장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심한 경쟁 사회
 - 과거와 달리 생명에 대한 경시 현상 확산

[표 2-6] 2018년 연령별 남성 무연고 사망자 현황

나이	수효(명)	비율(%)	비고
40세 미만	63	3.4	
40~49세	156	8.5	
50~59세	513	27.9	
60~64세	371	20.2	
65~69세	231	12.6	
70세 이상	502	27.4	
미상 및 기타	157*	8.6	*주민번호 성별확인 불가능자
합계	1836	100	

*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제3장

연구결과

제1절 50+세대 고독사 증가 요인

50+세대 고독사 증가요인을 살펴보기 위해서 서울시 퇴직자 현황 및 조기 퇴직자 실태, 금융권 명예퇴직자, 최근 3년간 고용변동, 정리해고 현황, 기업부도 업체 실태를 분석한다.

1. 퇴직자 실태 현황

1) 서울특별시 퇴직자 현황 분석

- 50+세대 고독사 증가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서울시 퇴직자 현황을 살펴보면 정년퇴직 외에 기타 퇴직 비율은 2014년(70%), 2015년(65.7%), 2016년(59.5%), 2017년(64.3%), 2018년(61.9%)의 비율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조기퇴직(명예, 의원면직, 기타면직)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조기퇴직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였다.

[표 3-1] 서울시 연도별 퇴직자 현황

년도	전체	정년퇴직	비율 (%)	기타퇴직		
				명예퇴직	의원면직	기타면직
2014	865(100)	260(30.0)	70	253(29.2)	168(19.4)	184(21.3)
2015	722(100)	248(34.3)	65.7	128(17.7)	165(22.9)	181(25.1)
2016	644(100)	261(40.5)	59.5	98(15.2)	152(23.6)	133(20.7)
2017	747(100)	267(35.7)	64.3	103(13.8)	161(21.6)	216(28.9)
2018	819(100)	312(38.1)	61.9	102(12.5)	196(23.9)	209(25.5)

* 출처 : <http://news.seoul.go.kr/gov/archives/827> 인사지표

- 통계대상 : 서울시(자치구 제외), 행정직, 기술직군, 관리운영(기능직), 연구지도직, 별정직 (전담직위, 전문경력관 포함)
 [명예퇴직] 인사적체 해소와 조직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퇴직할 수 있음.
- 관련법규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
 [의원면직]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
 [정년퇴직] 일반직이 60세에 도달하여 퇴직하는 경우
 [기 타] 사망에 의한 면직, 징계처분에 의한 해임 등

2) 직장인 조기퇴직자 실태 현황

- 직장인의 조기퇴직 상태를 분석하기 위해 살펴보면 직장인 10명 중 1명만 정년퇴직하며 조기 퇴직자 40% 계층추락 하였다.
 - 59세 이전 퇴직한 비율은 91.6%(남자: 88.8%, 여자: 93.8%) 2016년 5월 기준 만 55세~64세인 4,232명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 (통계청 자료)
 - 730명 조기퇴직자(당시 52세) 중 10명 중 4명(40.8%)가 퇴직 후

계층이 하락한 것으로 답한 비율이 28.4%보다 크게 높다고 한다

- 퇴직 후 창업 경험은 32.4%인데 비해서 창업 실패율은 74.2%이다
- 금융사기 평균 피해액은 1억5616만원
- 퇴직 당시 평균 연령은 52.2세

* 출처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24/2017032400030.html (2017. 03. 24) 미래에셋은퇴연구소

3) 금융권 명예퇴직자 현황

- 금융권 명예퇴직(2011년 8월~2012년 2월)자는 약 3,000명에 이르고 퇴직 조건은 지급비용은 약 1조원으로 추정된다.
- 명예퇴직자는 빚 상환, 교육비, 생활비의 용도로 사용한다고 한다
- 창업비용으로는 2억 원 안팎의 비용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표 3-2] 금융권 명예퇴직과 퇴직조건

	기관	인원(명)	조건
은행	하나은행	378	24~34개월 치 급여
	스탠더드 차타드 은행	849	최대 34개월 치 급여 자녀 학자금(5600만원 한도) 창업지원금 400만원 건강검진비 180만원
	농협	521	20개월 치 급여
	KB국민은행	47	24~30개월 치 급여 자녀 학자금(5600만원 한도) 창업지원금 월 100만원씩 1년간 지급
	신한은행	236	24~31개월 치 급여 자녀 학자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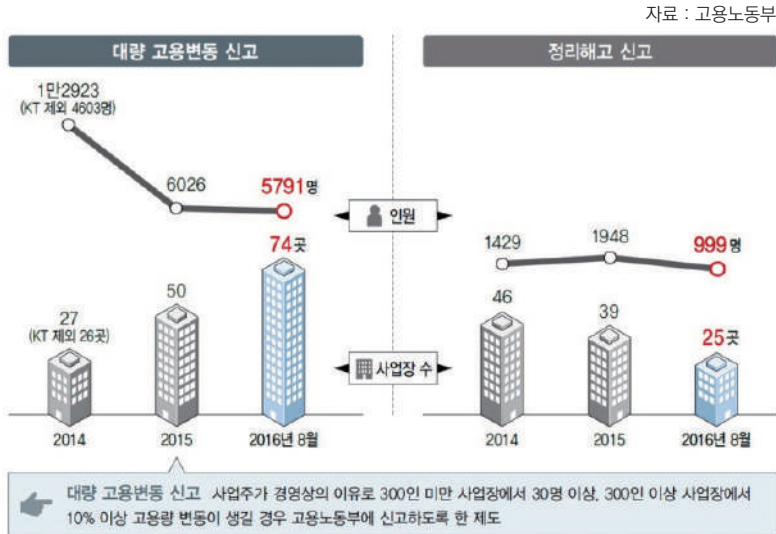
	기관	인원(명)	조건
증권	삼성증권	약 100	2억 원 안팎
	신한금융투자	약 40	2억 원 안팎 자녀 학자금
	미래에셋증권	약 10	비공개
보험	삼성생명	약 400	2억 원 안팎
	한화손해보험	15	최대 18개월 치 급여
	삼성화재	152	2억 원 안팎 대리점 설립 지원
카드	비씨 카드	80	최대 28개월 치 자녀 학자금(3000만원 한도)
	삼성카드	약 150	2억 원 안팎
합계		약 3000	약 1조원 추정

* 출처 :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2/02/93278/> 관련 회사 제공(2011. 8 ~ 2012. 2)

4) 최근 3년간 고용변동, 정리해고 현황

- 희망퇴직, 겉으로는 자발적 선택이지만 대기발령, 전보, 교육 등으로 압박하여 실제로는 거부하기 힘들다.
- 희망퇴직, 명예퇴직은 회사가 경영상 이유 등으로 인원 감축이 필요할 경우 위로금을 주고 퇴직시키는 제도이다
 - 고용변동 신고 추이를 보면 2014년 27곳 사업장 1만2,923명에서 2015년 50곳 6,026명, 올해 8월까지 74곳 5,791명으로 나타났다.
 - 2014년 케이티(KT)가 무려 8,320명을 대량으로 희망퇴직 시킨 이례적 요인을 제외하고 보면, 사업장 수나 인원 면에서 3년째 증가세가 뚜렷하다.

[그림 3-1] 최근 3년간 고용변동 정리하고 신고현황



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62948.html#csidxa3ca40f5c0b49cfa366d1b1306d2f3a (2016. 09.27)

2. 기업 부도업체 현황 분석

1) 기업 부도업체 현황

- 연도별 기업부도현황(대한건설협회)을 살펴보면 2011년(60), 2012년(48), 2013년(26), 2014년(17), 2015년(13), 2016년(17), 2017년(17), 2018년(10)의 업체가 부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3-3] 연도별 기업부도 현황

구분/ 시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체	60	48	26	17	13	17	17	10
서울	7	3	2	2	1	2	1	0
부산	2	0	1	0	0	3	0	4
대구	0	1	1	1	0	1	0	1
인천	6	2	1	3	0	2	2	0
광주	1	0	1	0	1	1	1	0
대전	2	0	1	0	1	1	0	0
울산	1	0	0	1	0	0	3	1
경기	20	12	5	3	6	0	2	1
강원	2	8	2	0	0	0	1	0
충북	2	1	0	0	0	0	0	0
충남	4	2	2	0	1	0	1	0
전북	2	1	2	4	1	0	2	0
전남	3	5	2	0	1	1	0	0
경북	4	8	2	0	1	3	2	1
경남	3	5	4	2	0	2	2	2
제주	1	0	0	1	0	0	0	0

출처 : http://www.cak.or.kr/stat/Statistics_budo.do?menuId=507 대한건설협회

3. 서울특별시 고독사 실태 분석

1) 서울시 고독사 지자체 연령분포

- 서울특별시 고독사(확실+의심) 지역별 연령분포 실태분석을 통해서 50+세대의 고독사 분포를 분석한다.
- 금천구의 경우 50대가 총 524명 중 34명(6.5%)으로 2위로 분석되었으며 60대는 총 368건 중 22건(6.0%)으로 50대는 2위를 차지해서 50+세대의 고독사 지역의 위험도가 높게 분석되었다.

[표 3-4] 서울시 고독사(확실+의심) 지역별 연령분포

자치구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이상	불상	계	비율
강남구	0	13	35	23	33	15	13	12	4	4	152	6.5
강동구	1	3	7	6	15	9	18	7	1	3	70	3.0
강북구	0	3	9	11	30	11	10	6	3	1	84	3.6
강서구	0	7	9	17	22	20	23	16	3		117	5.0
관악구	1	8	21	27	24	23	23	12	6	2	148	6.3
광진구	0	5	5	13	23	7	10	6	0	2	71	3.0
구로구	1	1	11	19	13	13	10	10	1	2	81	3.5
금천구	0	1	10	17	34	22	10	9	1	1	105	4.5
(%)	0	0	4.4	5.0	6.5	6.0	2.6	3.8	0	0	4.5	
노원구	3	3	8	16	31	32	33	15	3	4	148	6.3
도봉구	0	3	7	13	14	5	9	2	1	5	59	2.5

자치구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이상	불상	계	비율
동대문구	1	7	2	11	39	26	26	18	3	16	149	6.4
동작구	1	3	5	8	11	10	9	3	2	4	56	2.4
마포구	0	3	12	10	15	14	22	10	3	3	92	3.9
서대문구	0	7	5	19	15	20	15	8	0	3	92	3.9
서초구	0	2	9	10	10	7	5	3	5	8	59	2.5
성동구	0	2	8	8	10	6	12	8	2	1	57	2.4
성북구	0	5	9	18	25	11	15	9	3	2	97	4.1
송파구	0	4	14	12	25	17	14	12	5	3	108	4.6
수사부	0	3	5	6	11	6	5	2	1	4	43	1.8
양천구	0	2	4	16	15	19	12	13	4		85	3.6
영등포구	0	2	2	12	18	13	8	7	3		65	2.8
용산구	1	2	2	11	10	9	8	4	0	1	48	2.0

2) 서울특별시 고독사 확실사례 거주지 특성

- 금천구 거주지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고독사 사망자가 살던 주거특성을 보면 일반적으로 주거 취약 지역으로 다세대(지하포함)에 56건(34.7%), 아파트 29건(17.9%), 고시원 13건(8.02%), 빌라, 연립주택(지하), 원룸/고시원, 일반주택이 9건(5.56%)으로 분석되었다.
- 금천구의 경우 다세대주택이 56건으로 서울시 자치구에서 고독사(확실 +의심) 발견 주거지가 2위로 분석되어 고독사 위험 주거지역으로 분석되었다.

[표 3-5] 자치구별 고독사(확실+의심) 발견 주거 특성

자치구	다세대주택	일반주택	연립주택	빌라	아파트	오피스텔 등	원룸고시원	모텔호텔	여관하숙집	불상	공장회사영업장	기타	기록없음	총합계
강남구	12	5		38	51	12	18	3				9	4	152
강동구	26	19			14	2		3			1	5		70
강북구	18	15	1	10	8	0	3	1				7	21	84
강서구	24	5	2	23	46	5	4	1	1			2	4	117
관악구	45	15	4	19	16	3	22	2				3	19	148
광진구	38	8	1	4	6	1	2	1	2	1	1	4	2	71
구로구	40	5	1	5	14	3	1	1	2		1	4	4	81
금천구	56	9	1	5	19	5	6	1				1	2	105
(순위)	2위													
노원구	12	17	1	9	94	0	1		2			6	6	148
도봉구	18	2	1	10	15	1	1					4	7	59
동대문구	51	40	2	4	30	2	1	1	5	1		5	7	149
동작구	12	20		3	5	0	3				1		13	57
마포구	17	16		14	18	7	5	2	2			8	3	92
서대문구	24	12	3	22	12	4	7	1	2			2	3	92
서초구	7	4		14	18	4	22		1			4	5	59
성동구	19	4	1	2	15	2	3	1	2		1	1	6	56
성북구	28	22	2	9	23	2	2		1	1	1	1	4	97
송파구	29	27		5	19	4	3	1	1		1	1	18	108
수사부	14	4		3	14	3	1					1		43

자치구	다세대주택	일반주택	연립주택	빌라	아파트	오피스텔등	원룸고시원	모델호텔	여관하숙집	불상	공장회사영업장	기타	기록없음	총합계
양천구	28	2	3	7	29	3		1	1		1	2	9	85
영등포구	26	12	1	1	10	1						7	5	65
용산구	9	21	1	2	5	0	1	1				2	7	48
은평구	46	18	9	34	24	1	2	1	2			4	14	155
종로구	15	5	1	5	4	2	1	1	1			8	4	47
중구	6	9			6	0	1		7				4	33
중랑구	59	19	4	7	21	0	3	2				2	5	122
총합계	679	335	39	255	536	67	95	25	32	3	8	93	176	2343
비율	29.0	14.3	1.7	10.9	22.9	2.9	4.1	1.1	1.4	0.1	0.3	4.0	7.5	100

제2절 50+세대 1인 가구 설문 분석

1. 50+세대 고독사 설문조사

1) 고독사 설문조사 응답자 인적사항 분석

- 고독사 증가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금천구 지역을 중심으로 50+세대(만 50세~64세 미만)에서 1인 가구 15명(남 9명, 여 6명)을 대상으로 문헌연구에서 요약된 내용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설문 응답자 인적사항
- 고독사 증가요인
- 사회적 해법방안

(1) 고독사 설문 응답자 인적사항 (전체)

- 설문자 인적사항은 ①성별, ②수입, ③생활수준, ④학력, ⑤직업, ⑥혼인상태, ⑦만족여부, ⑧1인 가구 사유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 설문 응답자는 남성(9명), 여성(6명)으로 금천구 중심의 1인 가구 대상 50+세대(만50세~만64세)로 설문 되었다.
- 수입은 기타 12명(80%)으로 특별한 수입이 없으며 연금대상자는 전혀 없는 상태이고 생활수준은 (하)가 14명(93%)으로 응답되었으며 수입이 없어 생활 수준도 낮게 분석되었다.
- 학력수준은 기타(8), 무응답(1), 국졸(1) (66.7%)이며 직업은 11명(73.3%)이 “무”로 직업이 없는 상태로 분석되었다.
- 혼인 상태는 이혼 10명(66.7%)이며 사별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1인 가구 사유는 기타 8명(53%)으로 분석되었다.

[표 3-6] 설문응답자 인적기초 사항(전체)

① 성별	남 (9) 여 (6)		만 50 ~ 64세	1인 가구		
② 수입	연금 ()	개인활동 (1)	기타 (12)	무응답 (2)		
③ 생활수준	상 ()	중 (1)	하 (14)			
④ 학력	대학원 ()	대학 (1)	고졸 (4)	국졸 (1)	기타 (8)	무응답 (1)
⑤ 직업	행정 () 사업 ()	기술 (1) 회사원 ()	공무원 () CEO ()	무 (11) 무응답 (3)		
⑥ 혼인상태	이혼 (10)	미혼 (5)	사별 ()			
⑦ 만족여부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8)	불만 (7)		
⑧ 1인 가구 사유	경제 (5)	가정사 (2)	본인의지 ()	기타 (8)		

(2) 고독사 남성 설문 응답자 인적사항

○ 남성은(9명) 1인가구로 50+세대(만50세~64세)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다.

- 수입은 기타 6명 무응답 2명 (88.9%)으로 분석되었으며 생활 수준은 8명(88.9%)이며 학력은 국졸 1명, 기타 4명, 무응답 1명 (66.7%)로 낮은 학력과 직업은 “무” 7명, 무응답 1명 (88.9%) 혼인 상태는 이혼 5명, 미혼4명, 만족여부는 보통 5명, 불만 4명으로 만족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7] 설문응답자 인적사항(남성)

① 성별	남 (9) 여 ()		만 50 ~ 64세	1인 가구		
② 수입	연금 ()	개인활동 (1)	기타 (6)	무응답 (2)		
③ 생활수준	상 ()	중 (1)	하 (8)			
④ 학력	대학원 ()	대학 (1)	고졸 (2)	국졸 (1)	기타 (4)	무응답 (1)

⑤ 직업	행정 () 사업 ()	기술 (1) 회사원 ()	공무원 () CEO ()	무 (7) 무응답 (1)
⑥ 혼인상태	이혼 (5)	미혼 (4)	사별 ()	
⑦ 만족여부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5)	불만 (4)
⑧ 1인 가구 사유	경제 (4)	가정사 (1)	본인의지 ()	기타 (4)

(3) 고독사 여성 설문 응답자 인적사항

- 여성은(6명) 1인가구로 50+세대(만50세~64세)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다.
- 수입은 기타 모두6명(100%)로 매우 열악한 상태이며, 생활 수준 “하 “ 6명(100%)으로, 학력은 기타 4명(66.7%), 직업은 무(4), 무응답(2)으로 모두 무직 상태로 조사되었다.
- 혼인상태는 이혼 5명(83.3%), 만족 여부는 불만(3), 보통(3)이고, 1인 가구 사유는 기타 4명(66.7%)으로 조사되었다.

[표 3-8] 설문응답자 인적사항(여성)

① 성별	남 () 여 (6)		만 50 ~ 64세	1인 가구		
② 수입	연금 ()	개인활동 ()	기타 (6)	무응답 ()		
③ 생활수준	상 ()	중 (1)	하 (6)			
④ 학력	대학원 ()	대학 (1)	고졸 (2)	국졸 ()	기타 (4)	무응답 ()
⑤ 직업	행정 () 사업 ()	기술 () 회사원 ()	공무원 () CEO ()	무 (4) 무응답 (2)		
⑥ 혼인상태	이혼 (5)	미혼 (1)	사별 ()			
⑦ 만족여부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3)	불만 (3)		
⑧ 1인 가구 사유	경제 (1)	가정사 (1)	본인의지 ()	기타 (4)		

2) 금천구 고독사 지자체 설문조사 내역

- 금천구 지자체 대상 50+세대 1인 가구 대상 고독사 증가요인과 사회적 해법방안에 대한 설문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3-9] 금천구 지자체 50+세대 설문조사 내역 요약

설문 조사내역		빈도수	비율(%)
고독사 증가요인	• 정신과적, 스트레스 문제	10	66.7
	• 정신/건강 생명경시현상	9	60.0
	• 1인 가구 증가 및 가족관계단절	8	53.3
	• 이혼사별, 남녀 가정문제	7	46.7
	• 고독사 예방 대책미흡	7	46.7
	• 경제력상실	7	46.7
	• 비 존엄사(자살)	7	46.7

[시사점]

- 50+세대 고독사 증가요인 보다는 고독사 원인으로 응답된 것으로 분석 됨
- 사회관계망 확충에 대한 필요성 대두
 - 1인 가구, 정신적 문제, 고독사예방, 경제력, 비 존엄사 등

설문 조사내역		빈도수	비율(%)
사회적 해법방안	• 경제적 지원	13	86.7
	• 가족, 이웃 사회공동체 교육확대	13	86.7
	• 사회관계망 활성화 지원	11	73.3
	• 사회복지규정확장(만65세→만 50세)	8	53.3

[시사점]

- 경제적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제도 확충
- 고독사 예방정책 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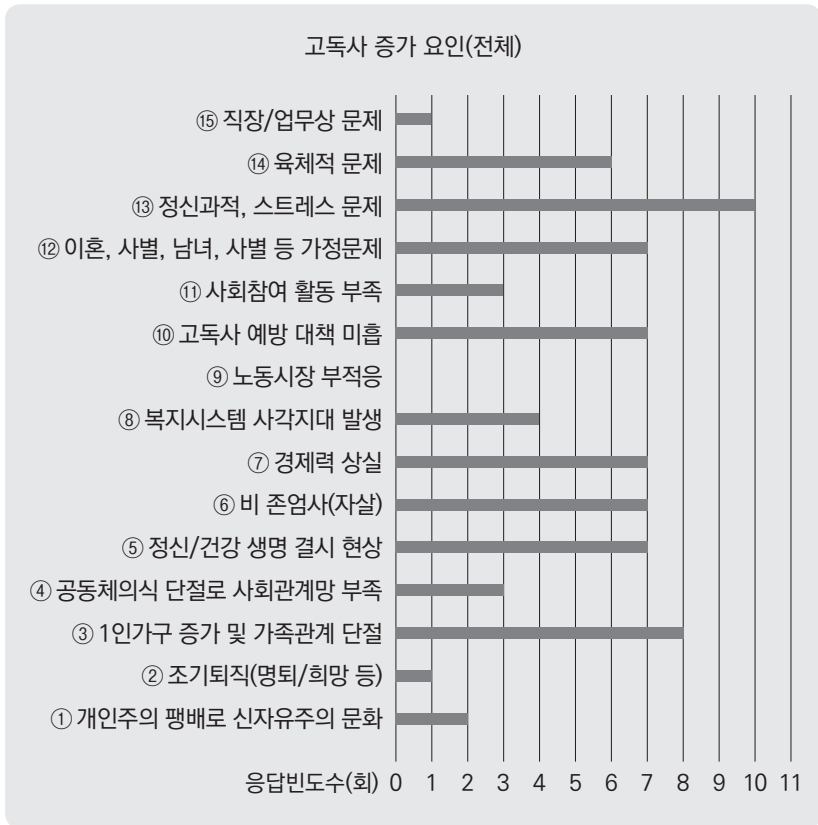
(1) 고독사 증가요인 분석(전체)

[표 3-10] 50+세대 고독사 증가요인 설문 분석(전체)

순 번	50+세대 고독사 증가 요인	남성									여성					
		P1	P2	P3	P4	P5	P6	P7	P8	P9	P10	P11	P12	P13	P14	P15
①	개인주의 팽배로 신자유주의 문화									✓					✓	
②	조기퇴직(명퇴/희망 등)												✓			
③	1인가구 증가 및 가족관계 단절	✓			✓		✓	✓	✓		✓	✓			✓	
④	공동체 의식 단절로 사회관계망 부족					✓		✓				✓				
⑤	정신/건강 생명 경시 현상		✓	✓	✓	✓			✓	✓	✓	✓				✓
⑥	비 존엄사(자살)	✓	✓	✓					✓				✓	✓		✓
⑦	경제력 상실		✓		✓	✓	✓	✓	✓	✓						
⑧	복지시스템 사각지대 발생	✓		✓						✓						✓
⑨	노동시장 부적응															
⑩	고독사 예방 대책 미흡	✓	✓	✓		✓	✓							✓		✓
⑪	사회참여 활동 부족							✓			✓		✓			
⑫	이혼, 사별, 남녀, 사별 등 가정문제				✓	✓			✓		✓	✓		✓	✓	
⑬	정신과적, 스트레스 문제	✓	✓	✓			✓	✓		✓		✓	✓	✓	✓	
⑭	육체적 질병				✓		✓						✓	✓	✓	✓
⑮	직장/업무상 문제										✓					

- P : 설문자

- ✓ : 증가요인 응답빈도



□ 고독사 증가요인 설문 종합적인 시사점

- 본 설문 50+세대 고독사 증가요인 응답에서는 현실적으로 설문응답자들이 증가 요인보다는 설문응답자들의 입장에서 고독사 원인에 더 중점을 두고 응답한 측면이 있다.
- 설문 대상이 학력이 높고 전직 생활을 하며 50+세대 1인 가족이 된 경우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 현실적으로는 일자리와 경제적 측면의 문제로 요약된다.

- 경제적 지원과 일자리
- 사회관계망 개선과 사회복지 안전망(조례입법, 예방대책) 등

(2) 고독사 남성 증가요인 분석

○ 고독사 증가요인으로 선행 연구를 중심으로 15개 항목 중 중요한 5개 항목을 선택하도록 개방형으로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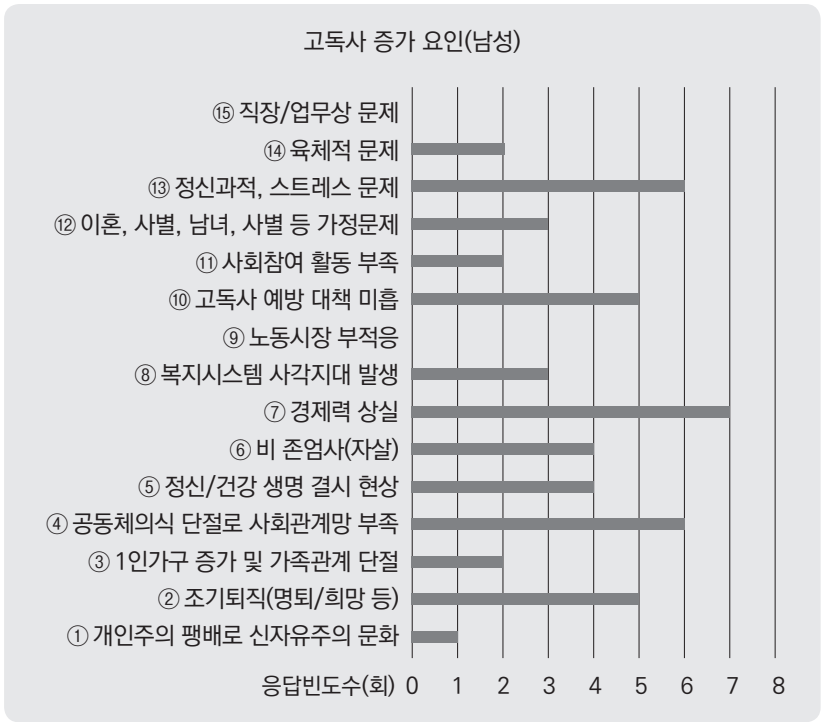
- 고독사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증가요인으로 “1인 가구 증가 및 가족관계 단절”로 조사되었으며 그다음으로 “비 존엄사(자살)과 경제력 상실로 조사되었다.
- 9명의 설문자 중 7명(77.8%)가 경제력 상실을 선택했으며 6명(66.7%)는 정신/건강 생명 경시 현상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고독사 예방대책에 대한 필요성도 5명(55.6%)으로 조사되었다.

[표 3-11] 50+세대 남성고독사 증가요인 설문 분석

순번	50+세대 고독사 증가 요인	P1	P2	P3	P4	P5	P6	P7	P8	P9
①	개인주의 팽배로 신자유주의 문화									✓
②	조기퇴직(명퇴/희망 등)									
③	1인가구 증가 및 가족관계 단절	✓			✓		✓	✓	✓	
④	공동체 의식 단절로 사회관계망 부족					✓		✓		
⑤	정신/건강 생명 경시 현상		✓	✓	✓	✓			✓	✓
⑥	비 존엄사(자살)	✓	✓	✓					✓	
⑦	경제력 상실		✓		✓	✓	✓	✓	✓	✓
⑧	복지시스템 사각지대 발생	✓		✓						✓
⑨	노동시장 부적응									

순번	50+세대 고독사 증가 요인	P1	P2	P3	P4	P5	P6	P7	P8	P9
⑩	고독사 예방 대책 미흡	✓	✓	✓		✓	✓			
⑪	사회참여 활동 부족							✓		
⑫	이혼, 사별, 남녀, 사별 등 가정문제				✓	✓			✓	
⑬	정신과적, 스트레스 문제	✓	✓	✓			✓	✓		✓
⑭	육체적 질병				✓		✓			
⑮	직장/업무상 문제									

- P : 설문자
- ✓ : 증가요인 응답빈도



(3) 고독사 여성 증가요인 분석

○ 고독사 증가요인 설문 여성 대상은 5명으로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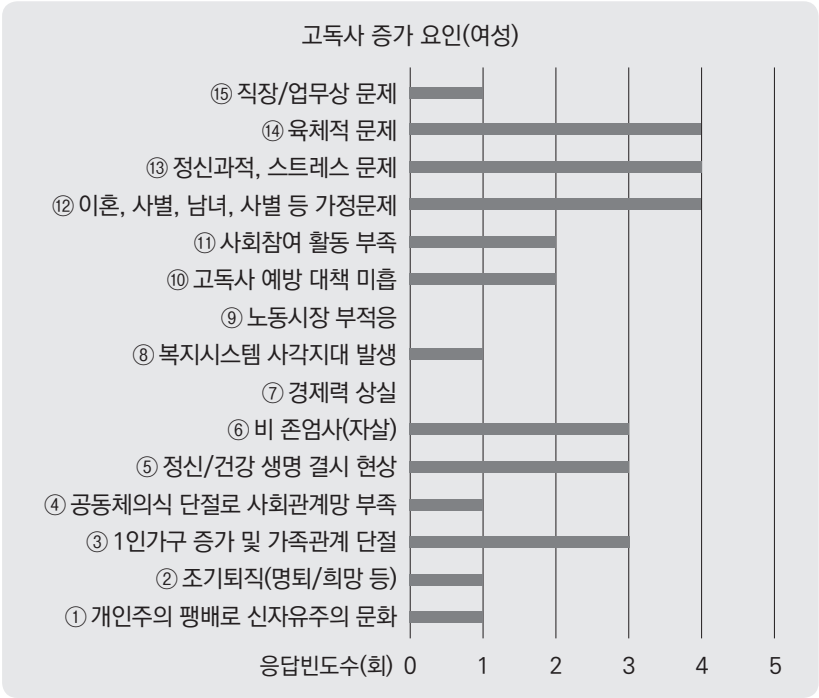
- 육체적 질병과 정신건강 스트레스, 이혼, 사별, 가정문제, 육체적 질병이 4명 (66.7%)로 분석되었다.
- 1인 가구, 비존엄사(자살)도 3명(50%)으로 분석되었다.

[표 3-12] 50+세대 여성고독사 증가요인 설문 분석

순번	50+세대 고독사 증가 요인	P1	P2	P3	P4	P5	P6	P7	P8	P9
①	개인의 패배로 신자유주의 문화					✓				
②	조기퇴직(명퇴/희망 등)			✓						
③	1인가구 증가 및 가족관계 단절		✓			✓				
④	공동체 의식 단절로 사회관계망 부족	✓	✓							
⑤	정신/건강 생명 경시 현상		✓				✓			
⑥	비 존엄사(자살)	✓		✓	✓		✓			
⑦	경제력 상실									
⑧	복지시스템 사각지대 발생						✓			
⑨	노동시장 부적응									
⑩	고독사 예방 대책 미흡				✓		✓			
⑪	사회참여 활동 부족			✓						
⑫	이혼, 사별, 남녀, 사별 등 가정문제	✓	✓		✓	✓				
⑬	정신과적, 스트레스 문제	✓	✓	✓	✓	✓				
⑭	육체적 질병			✓	✓	✓	✓			
⑮	직장/업무상 문제	✓								

- P : 설문자

-✓ : 증가요인 응답빈도



3) 고독사 해법방안 설문조사 분석

(1) 고독사 해법방안 설문(전체)

[표 3-13] 50+세대 1인 가구 고독사 해법방안 설문 분석

순 번	50+세대 고독사 증가 요인	남성									여성					
		P1	P2	P3	P4	P5	P6	P7	P8	P9	P10	P11	P12	P13	P14	P15
①	사회복지 규정 확장 (60세 → 50세) 조례	✓		✓		✓	✓	✓		✓				✓		✓
②	정년연장, 폐지, 재취업 등 추진								✓		✓		✓	✓	✓	

순 번	50+세대 고독사 증가 요인	남성									여성					
		P1	P2	P3	P4	P5	P6	P7	P8	P9	P10	P11	P12	P13	P14	P15
③	예방대책 확대 (60세 → 50세)	✓	✓					✓	✓	✓						✓
④	사회참여 활동 지원		✓	✓	✓	✓	✓	✓	✓			✓	✓	✓	✓	
⑤	국민연금 수급기간 단축								✓							
⑥	일자리 지원 확대				✓	✓					✓	✓	✓	✓		
⑦	사회관계망 활성화 지원	✓	✓	✓	✓		✓		✓	✓	✓	✓			✓	✓
⑧	퇴직 전 전직지원전문가 교육 확장					✓										
⑨	가족, 이웃 사회공동체 교육 확대	✓	✓	✓	✓	✓	✓	✓		✓	✓	✓	✓		✓	✓
⑩	경제적 지원	✓	✓	✓	✓		✓	✓		✓	✓	✓	✓	✓	✓	✓

- P : 설문자

- ✓ : 증가요인 응답빈도



□ 고독사 해법방안 설문 종합적인 시사점

- 50+세대 남성은 사회복지제도 규정을 50+세대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
- 사회참여에 대한 활동이나 관계망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예방대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 50+세대 여성 1인 가구 대상자들은 경제적 지원에 대한 사회복지 안 전망 확충에 관심이 높았다.

(2) 남성 고독사 해법방안

- 본 설문에서는 금천구 지방자치제 중심으로 50+세대 15명 중 9명의 남성이 1인 가구가 된 사람으로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10개 항목 중 5개 항목으로 중요도에 따라서 순서대로 설문을 시행하였다.
- 해법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사회복지 규정 사각지대인 50+세대 확충으로 6명(66.7%)에 대해 응답하였다.
- 사회참여 활동, 사회관계망 활성화, 가족, 이웃 사회공동체 교육 확대, 경제적 지원 7명(77.8%)이 고독사 해법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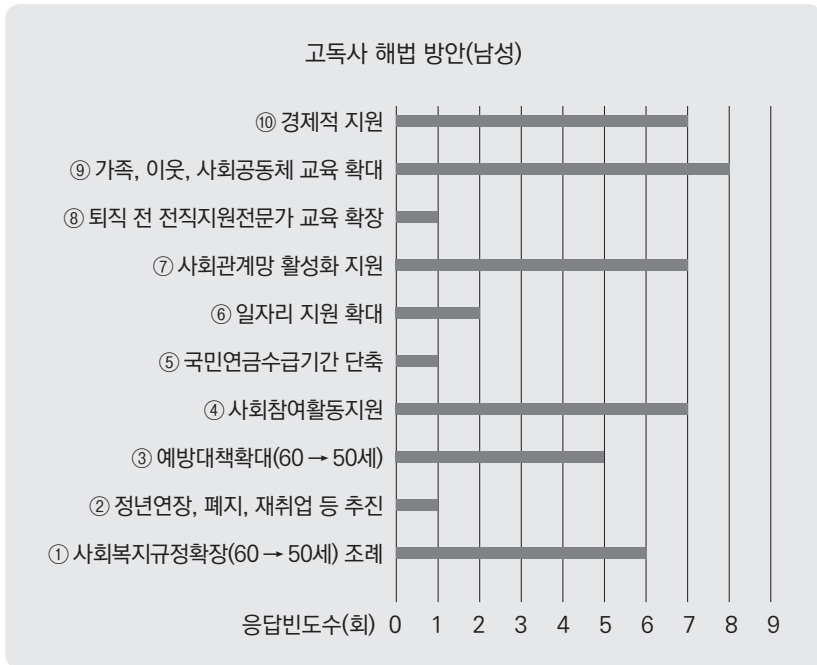
[표 3-14] 50+세대 1인 가구 남성 고독사 해법방안 설문 분석

순번	50+세대 고독사 해법방안	P1	P2	P3	P4	P5	P6	P7	P8	P9
①	사회복지 규정 확장 (60세 → 50세) 조례	✓		✓		✓	✓	✓		✓
②	정년연장, 폐지, 재취업 등 추진								✓	
③	예방대책 확대 (60세 → 50세)	✓	✓					✓	✓	✓
④	사회참여 활동 지원		✓	✓	✓	✓	✓	✓	✓	

순번	50+세대 고독사 해법방안	P1	P2	P3	P4	P5	P6	P7	P8	P9
⑤	국민연금 수급기간 단축								✓	
⑥	일자리 지원 확대				✓	✓				
⑦	사회관계망 활성화 지원	✓	✓	✓	✓		✓		✓	✓
⑧	퇴직 전 전직지원전문가 교육 확장					✓				
⑨	가족, 이웃 사회공동체 교육 확대	✓	✓	✓	✓	✓	✓	✓		✓
⑩	경제적 지원	✓	✓	✓	✓		✓	✓		✓

- P : 설문자

-✓ : 증가요인 응답빈도



(3) 여성 고독사 해법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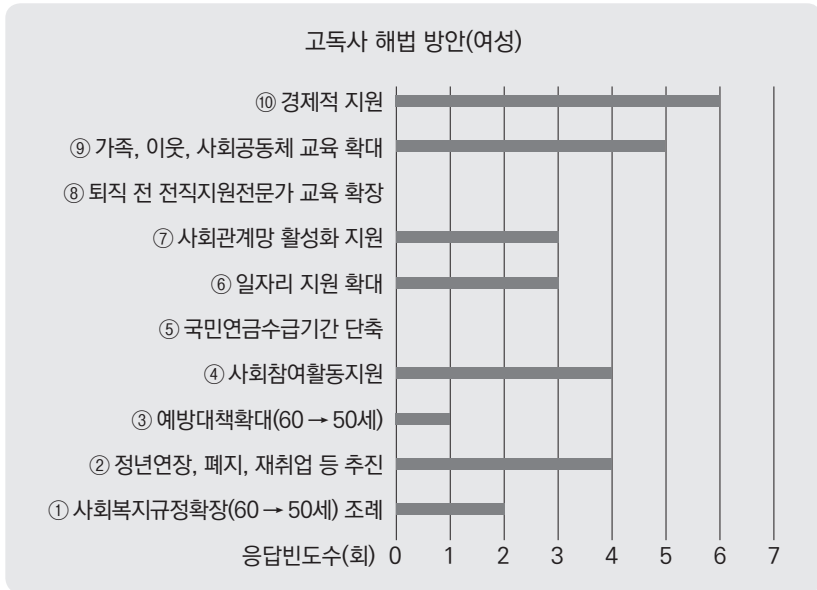
- 고독사 해법방안으로 6명(100%)이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되었으며 일자리 지원확대가 4명(66.7%)으로 분석되었다.

[표 3-15] 50+세대 1인 가구 여성 고독사 해법방안 설문 분석

순번	50+세대 고독사 해법방안	P1	P2	P3	P4	P5	P6	P7	P8	P9
①	사회복지 규정 확장 (60세 → 50세) 조례				✓		✓			
②	정년연장, 폐지, 재취업 등 추진	✓		✓	✓	✓				
③	예방대책 확대 (60세 → 50세)						✓			
④	사회참여 활동 지원		✓	✓	✓	✓				
⑤	국민연금 수급기간 단축									
⑥	일자리 지원 확대	✓	✓	✓	✓					
⑦	사회관계망 활성화 지원	✓	✓			✓	✓			
⑧	퇴직 전 전직지원전문가 교육 확장									
⑨	가족, 이웃 사회공동체 교육 확대	✓	✓	✓		✓	✓			
⑩	경제적 지원	✓	✓	✓	✓	✓	✓			

- P : 설문자

- ✓ : 증가요인 응답빈도



2. 설문조사 분석의 한계

- 본 설문조사에 응답한 50+세대가 1인 가구 생활자를 대상으로 실시해 여 인적 환경이나 학력, 전직 활동 등이 하위계층이라 중상류층의 1인 가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해 설문에 한계가 있었다.
- 설문에 응답한 대상자 설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표본 수가 적은 점도 본 조사의 한계점으로 본다.
- 이번 조사연구에서는 금천구를 중심으로 대상을 설정하여 다른 지방자치구와 다른 결과가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 이번 조사에 대한 시사점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확보를 통한 경제력 가치상실 회복이 중요하게 조사되었다.

제3절 고독사 관계자 인터뷰 분석

1. 고독사 돌봄 사회복지사 인터뷰

1) 인터뷰 내역

- 일자 : 2019.08.14(수) 14:00~16:00
- 장소 : 금천구 시흥4동 주민자치센터 3층 주민회의실
- 인터뷰 대상 : 금천구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사 3명
 - 사회복지사 A : 사회복지사 활동 10년(금천구청, 구청 산하 주민자치센터)
 - 사회복지사 B : 사회복지사 활동 7년(금천구청, 구청 산하 주민자치 센터)
 - 사회복지사 C : 사회복지사 활동 5년(금천구청, 구청 산하 주민자치 센터)
- 내용 : 50+세대 설문조사와 관련하여 금천구 지방자치구 사회복지사로 활동하면서 본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선행연구와 50+세대 1인 가구 설문조사 내용을 기반으로 5개 유형을 작성해서 인터뷰를 개인별로 실시하였다.
- 방법 : 1명씩 개인별로 인터뷰 실시
- 인터뷰 : 안인숙 책임연구원, 이영철 연구원

(1) 인터뷰 내용 요약

- 인터뷰는 동일내용을 개인별로 실시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인터뷰 주제 별 의견을 종합하여 요약하였다
- 금천구 50+세대 1인가구의 특성
- 50+세대 1인 가구 환경에 따른 해법방안

- 50+세대 고독사 증가요인과 해법방안
- 정책제안 사항

[표 3-16] 고독사 돌봄 사회복지사 인터뷰 내역 요약

고독사 관계 사회복지사 인터뷰 내역	
질문 내용	답변요약
1) 금천구의 경우 50+세대 1인 가구 설문내용을 분석해 보면 해법 방안으로 경제적인 지원과 사회복지안전 망 (조례, 예방대책)을 50+ 세대 로 확충이 필요하다고 응답되었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 지요?	1) 새로운 고용시장 정보 이해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 중소기업, 개인사업 악화로 인한 실직자
2) 50+세대 1인가구라도 학력이나 전직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한 사람과 그 반대로 학력이나 전직 사회활동을 정상적으로 못한 사람들의 고독사 요인과 해법 방안 측면에서 보면 현장에서 어떻게 느끼시는지요?	2) 사회안전망 조례 사각 지대 제거 - 지원 대상을 만 65세 → 만 50세
3) 사회복지사 입장에서 50+세대의 고독사가 증가되는 요인을 무엇으로 보시는지요?	3) 서울시 고독사 예방 대책 확충 - 만 65세 → 만 50세
4)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사회복지사 입장에서 느끼는 50+세대 고독사 해법 방안이 있다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5) 사회복지사로서 활동하시면서 고독사와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시사점]

- 퇴직자들에게 고용시장 정보 이해를 위한 교육실시가 필요하다.
 - 일자리 정보, 교육정보, 인생이모작 활동
- 사회안전망인 지방자치제 조례, 예방대책 적용대상 확대가 필요하다.
 - 만 65세 이상 → 만 50세 이상으로 확충 필요

첫 번째 질문

금천구의 경우 50+세대 1인 가구 설문내용을 분석해 보면 해법 방안으로 경제적
인 지원과 사회복지안전망 (조례, 예방대책)을 50+세대로 확충이 필요하다고
응답되었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전체 의견

- 대부분 금천구 50+세대 1인 가구 대상자들은 기초생활 수급자 혹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로서 경제적 지원에 대한 필요가 현실적인 문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 사회공헌형 일자리, 봉사활동 등 육체적인 노동을 크게 필요로 하지 않는 간단
한 일자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 현실적으로 경제적 지원은 사회전망 확충을 통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고독사 조례 지원대상을 만 50세 이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질문

50+세대 1인가구라도 학력이나 전직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한 사람과 그 반대
로 학력이나 전직 사회활동을 정상적으로 못한 사람들의 고독사 요인과 해법방안
측면에서 보면 현장에서 어떻게 느끼시는지요?

전체 의견

- 전직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고 조기퇴직을 하거나, 사업에 실패한 사람은 나름대
로 능력이 있어서 홀로서기가 가능 하지만 학력이나 능력이 부족한 50+세대는
고독사 원인도 다양해서 사회안전망에 의지할 수 뿐이 없다.
- 대기업에서 조기퇴직을 하거나 사업으로부터 실패한 사람들 중에서도 나름대
로 사회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고독사로부터 탈출을 하지만 사업에 재시도 하

다 실패하거나 직장생활을 했어도 사회관계가 부족한 사람들은 주로 알콜중독, 건강악화등으로 고독사를 맞이한다.

세 번째 질문

사회복지사 입장에서 50+세대의 고독사가 증가되는 요인을 무엇으로 보시는지요?

전체 의견

- 50+세대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퇴직과 사업실패로 인한 고용환경 문제가 가장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 궁극적으로는 기존에 고독사 환경에서 사회환경 변화로 조기퇴직이나 사업 환경 악화로 인해 고용시장으로 퇴출되면서 이와 관련하여 경제적 가치상실로 사회관계망 단절이나 가정해체 등이 연장되면서 50+세대 고독사 증가요인으로 예측된다.

네 번째 질문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사회복지사 입장에서 느끼는 50+세대 고독사 해법 방안이 있다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전체 의견

- 50+세대로 1인가구가 된 사람일지라도 고독사 위험권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 따라서 위험군 범위내로 들어온 사람이라면 사회참여형 일자리 교육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기초생활 수급자로 관리를 해야 할 사람인지 맞춤형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 조기퇴직 문제는 정년 연장이나 퇴직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러한 문제는 사회적으로 국가와 기업과 당사자들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사업환경 변화에 대한 개인사업 실패로 인한 문제들은 다시 재기할 수 있는 Re-start 프로그램에 대한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섯 번째 질문

사회복지사로서 활동하시면서 고독사와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전체 의견

- 퇴직자나 사업실패자들에게 새로운 고용시장에 대한 마인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대안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 대부분 대기업에서는 퇴직 후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하는 사람들은 너무 생소한 고용시장 환경을 만나다 보니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고 방황한다는 점이다.
- 사회안전망 조례에 대한 적용대상에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 사업실패로 추락하는 50+세대들에게 재도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2) 사회복지사 개인 별 인터뷰 내역

첫 번째 질문

금천구의 경우 50+세대 1인 가구 설문내용을 분석해 보면 해법방안으로 경제적 인 지원과 사회복지안전망 (조례, 예방대책)을 50+세대로 확충이 필요하다고 응답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견

- 사회복지사 A : 대부분 육체적으로 능력이 없는 사람들로 현재 제도하에서는 기초생활수급이나 기초노령연금으로 지원해야 한다.
- 사회복지사 B : 안부확인과 같은 사회안전망은 매우 발전되어있지만 실제로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제한되어있다.
- 사회복지사 C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은 사회공헌형 일자리나 봉사활동에 대한 저급비용이며 또한 다른 활동을 할 만한 역량이 매우 부족해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두 번째 질문

50+세대 1인가구라도 학력이나 전직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한 사람과 그 반대로 학력이나 전직 사회 활동을 정상적으로 못한 사람들의 고독사 요인과 해 법방안이 같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내용이 다르다면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의견

- 사회복지사 A : 물론 다르다고 본다. 그러나 전직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고 조기 퇴직을 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해결을 해나가기 때문에 큰 문제

가 없으나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고 50+세대가 된 사람들은 사회안전망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 사회복지사 B : 전직에서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다 1인가구가 된 사람은 나름대로 고독사 예비군집에서 이탈되지만 고독사 군으로 편입되는 군은 역량이나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로써 국가의 도움을 받는 방법 외에 현실적 대안이 부족하다.
- 사회복지사 C : 현재는 기초고령연금 35만원이나 기초생활 수급자로 50만원을 지급해 주는데 실제 현장에서 고독사 실태 조사 지원대상자는 경제적 지원도 이 제도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세 번째 질문

사회복지사 입장에서 50+세대의 고독사가 증가되는 요인을 무엇으로 보시는지요?

의견

- 사회복지사 A : 사회관계망이나 안전망이 완벽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기퇴직이나 경영악화로 인한 사업실패로 50+세대의 고독사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 사회복지사 B :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특히 우리나라의 사업 환경은 주변여건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특히 50+세대가 그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은 분명하며 기업도 구조조정을 하는데 그 대상은 50대이다.
- 사회복지사 C : 고독사는 대부분 고령자들의 건강악화나 사회안전망 부재로 발생되는데 우리나라는 기업의 구조조정과 경기악화로 인한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쉽게 고용시장으로 밀려나오는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네 번째 질문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사회복지사 입장에서 느끼는 해법 방안이 있다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의견

- 사회복지사 A : 사회고용 안전망 확충으로 공공일자리,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만들어 경제적 지원보다도 사회참여형 일자리를 통해서 자아실현과 가치 중심의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가장 필요하다고 본다.
- 사회복지사 B : 퇴직 전에 퇴직 후 활동에 대한 전문 교육의 필요성을 많이 갖고 있다. 대부분 퇴직 후 어떻게 활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본다.
- 사회복지사 C : 현장에서 특별한 방법은 없으나 현실적으로는 국가의 지원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며, 50+세대도 때로는 도와주려고 하면 실제 자존심 때문에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 지방자치단체 고독사 조례 지원 대상을 50+세대까지 확충할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 질문

사회복지사로서 활동하시면서 고독사와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의견

- 사회복지사 A : 퇴직 후 인생이모작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실제 많은 교육이 있다고는 하나 현장에서 보면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나 사업을 하다 실업/폐업자가 된 사람들은 전문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본다.

- 사회복지사 B : 지방자치단체 고독사 조례와 예방대책의 지원 대상을 50+세대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사회복지사 C : 고독사에 대한 일반적인 매뉴얼은 있으나 실제 고독사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행 조치하다 보면 구체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절차에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아 구체적으로 규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제4절 고독사 입법 현황 분석

1. 조례 입법 현황

1) 서울특별시 지방자치단체 조례 현황

○ 본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지방자치단체 25개 지역 고독사 예방 조례를 분석하기 위해서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의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제어로 고독사 조례의 단어로 조례 검색을 하여 분석하였다.

- 본 연구에서 분석한 내용은 50+세대의 지원여부에 중점을 두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에 한정해서 분석하였다.

- 고독사 조례 입법여부
- 지원 대상
- 지원내용

(1) 고독사 조례 입법여부

- 서울특별시 고독사 조례는 2019. 7월 30일 기준으로 모두 입법화되어 있다.

(2) 지원 대상

- 대부분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만65세 이상의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으로 되어 있다.

- 만 50세 이상 (양천구 강동구)

- 만 60세 ~ 65세 이상 (용산구)
-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3) 지원내용

- ①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 ②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ICT(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 서비스
- ③ 방문간호서비스 및 긴급의료 지원
- ④ 가스·화재·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 ⑤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 ⑥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 ⑦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지원
- ⑧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표 3-17] 서울특별시, 지자체 입법내용 현황

지자체명	자치법규명	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정·개정 구분
강남구	서울시 강남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제1394호	2017. 7. 7.	제정
강남구	서울시 강남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제1453호	2018. 12. 14.	제정
강동구	서울시 강동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	조례	제1285호	2017. 8. 9.	제정
강북구	서울시 강북구 홀몸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조례	조례	제1076호	2015. 9. 25.	제정

지자체명	자치법규명	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정·개정 구분
강서구	서울시 강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관한 조례	조례	제1214호	2018. 12. 28.	제정
관악구	서울시 관악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제1116호	2016. 12.29.	제정
광진구	서울시 광진구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조례	제1033호	2019. 3.12.	제정
구로구	서울시 구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조례	제1386호	2019. 3. 14.	제정
금천구	서울시 금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제912호	2017. 5. 15.	제정
노원구	서울시 노원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을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	조례	제1217호	2016. 6. 30.	제정
노원구	서울시 노원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1369호	2019. 3. 27.	제정
도봉구	서울시 도봉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제1254호	2017. 12.28.	제정
동대문구	서울시 동대문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 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조례	제1242호	2018. 7.12.	전부 개정
동작구	서울시 동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관한 조례	조례	제1434호	2019. 5.9.	제정
마포구	서울시 마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충을 위한 조례	조례	제1187호	2018. 12.27.	제정
서대문구	서울시 서대문구 사회적 고립 1인 가 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제1252호	2018. 7.4.	제정

지자체명	자치법규명	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정·개정 구분
서초구	서울시 서초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제1028호	2016. 2. 5.	제정
성동구	서울시 성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제1275호	2018. 3. 21.	제정
성북구	서울시 성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조례	제1221호	2018.11. 15.	제정
송파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1325호	2016. 7. 14.	제정
양천구	서울시 양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제1168호	2015. 3. 26.	제정
양천구	서울시 양천구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1322호	2017. 12.28.	제정
영등포구	서울시 영등포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제1097호	2016. 5.12.	제정
용산구	서울시 용산구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1188호	2017. 4.7.	제정
은평구	서울시 은평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제1118호	2016. 7.28.	제정
종로구	서울시 종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1310호	2019. 4.5.	제정
중구	서울시 중구 홀몸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조례	제1410호	2017. 12.27.	일부 개정
중랑구	서울시 중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1177호	2016. 11.10.	제정

* 자료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AdmRulAstSc.do?tabMenuId=tab5&query>

2) 시사점

- 50+세대 고독사 조례 사각지대 발생
-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의 1인가구로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관내 홀로 사는 노인,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등 해당지역 구에 주소가 되어있는 자로 규정
- 만 50세로 확충된 지방자치단체는 25개 중 2개(양천구, 강동구)
- 용산구 : 만60세로 규정

제4장 정책제언

제1절 50+세대 고독사 증가요인

1. 조기퇴직과 사업악화 (휴업·폐업·실직)

선행 문헌과 고독사 설문조사 및 관계자 인터뷰를 종합해 볼 때 50+세대 고독사 증가요인을 분석해 보면 어떤 한 요인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고 특히 50+세대는 고령화와 관련 없이 조기퇴직과 사업악화로 인한 실직이 고독사 증가요인의 주요 핵심요인으로 분석되었다.

1) 조기퇴직(희망, 명예)

- 사회적 환경변화로 인한 고독사 증가 요인 중 가장 주요한 내용은 50+세대에 조기퇴직으로 인한 경제적 상실로부터 50+세대에서 고독사의 요인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2018년)

- 55세~64세 취업 경험자 중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는 평균 근무기간이 15년 4.9개월이다.

[표4-1]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 근무기간

구분	전체	남자	여자
2011	16년 5.8개월	20년 0.9개월	12년 9.3개월
2012	16년 4.2개월	19년 11.2개월	12년 7.7개월
2013	15년 10.4개월	19년 5.2개월	12년 1.7개월
2014	15년 4.3개월	19년 0.4개월	11년 6.9개월
2015	14년 9.5개월	18년 7.9개월	10년 10.2개월
2016	14년 11개월	18년 10.1개월	10년 11.1개월
2017	15년 3.5개월	19년 3.5개월	11년 2.4개월
2018	15년 4.9개월	19년 3개월	11년 5.7개월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객년도 5월

주 : 1) 현재 취업자(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현재도 다니는 경우포함)와 취업경험 있는 미취업자

○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2018년)

- 55~64세 취업 경험자 중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는 「사업 부진, 조업중단, 휴·폐업」이 31.9%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19.5%)」, 「가족을 돌보기 위해(15.8%)」 순을 보였다.

(1) 해법방안

- 조기퇴직으로 인한 실직 문제는 기업이나 어느 분야만의 해법으로 해

결할 수 없는 문제로 기업이나 사회, 국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은 다음과 같다

- 정년연장, 정년제 폐지, 의무고용제, 고용 안전망 확충, 고독사 조례 지원 대상 확충 등의 문제를 고려할 수 있다.

2) 사업부진(휴, 폐업)

-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기업의 부도율을 보면 (대한건설협회 기준) 2011년부터 높은 부도율을 보이고 있다.

- 2011년(60), 2012년 (48), 2013년(26), 2014년(17), 2015년 (13), 2016년(17), 2017년(17), 2018년(10)의 업체가 부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소규모 사업자의 폐업으로 인한 종사자의 실직은 50+세대에게는 경제적 가치상실로부터 고독사의 치명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고 본다.

http://www.cak.or.kr/stat/Statistics_budo.do?menuId=507 대한건설협회

(1) 해법방안

- 경영환경 악화로 인해 폐업으로 나타나는 50+세대 실직자들은 재기에 어려움은 물론 고독사로 쉽게 진입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는 재도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서 Re-start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서 사업을 회생시키거나 다른 분야로 일자리를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고독사 유인경로에서 탈피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고독사 조례 법안

1) 서울특별시 고독사 조례 입법

- 지원대상이 주로 1인 가구 중심으로 만 65세 이상으로 입법화 되어 있음
 - 지원 대상 50+세대로 규정된 기관
 - 강동구, 양천구
 - 용산구 : 만 60세
 - 지원 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르게 지원되고 있다.

2) 고독사 예방 및 1인 가구 사회안전망 확충 법률안

- 법률안 제출 일 : 2017년 8월 29일
- 제출의원 : 기동민의원 (의안번호 제8844호)
 - 고독사 예방 대상을 '1인 가구'로 확대하는 내용
 - '1인 가구' 정의확립
- 1명이 단독으로 취사, 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단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고독사 통계 작성 의무화
- 현재 상임위계류단계 (의원사무실) 02-784-3181

3) 고독사 예방법안

- 법률안 제출 일 : 2017년 9월 29일
- 제출의원 : 김승희 의원 (의안번호 제9759호)

- 보건복지부 고독사 관련 주무부처 지정
 - 고독사 예방정책 추진
 - 고독사 위험자 조기발견 및 위원체계 구축
- 고독사 위험지도 작성 및 고독사 예방센터 운영
 - 고독사 예방정책 추진
 - 고독사 위험자 조기발견, 지원체계 구축
 - 고독사 위험지도
 -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
 - 고독사 예방센터 운영 등
- 현재 상임위 계류단계 (의원사무실) 02-784-8191

제2절 고독사 요인 별 해법방안

1. 고독사 증가 요인 별 해법방안

- 50+세대 고독사 증가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문헌 연구와 전문가들의 의견, 설문조사를 분석해 본 결과 조기퇴직(명예퇴직, 희망퇴직)으로 인한 실직과 기업의 악화로 인한 폐업, 휴업, 실직 등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표 4-2] 50+세대 고독사 증가요인 별 해법방안

50+세대 고독사 증가요인	사회적 해법방안
① 조기퇴직 (희망퇴직, 희망퇴직)	• 임금피크제/정년제 폐지/의무고용제 추진 • 고용안전망 확충 / 국민연금 수급시기 조정 • 전직경력 활용 시스템 구축 • 고독사 조례 지원대상 확대
해법 관련기관	- 국가, 기업, 국민과의 사회적 합의 • 법/제도적 장치 마련 - 서울시, 지방자치단체 조례, 예방정책 확대
② 사업부진 (휴업, 폐업)	- 재도전(금융, 교육) 기회 제공 • 재도전, 사업변경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고용시장 인식 교육 확대 - 사회안전망 확충
해법 관련기관	• 서울시, 지방자치단체 (50+세대 조례, 예방대책 지원 대상 확충) • 금융기관, 정부

제안사항

- 1) 50+세대 사회공헌형 일자리 확대
- 2) 50+세대 보람일자리 확충
- 3) 고독사 조례 지원대상 확대 (만 65세 → 만 50세)
- 4) 조기퇴직자, 폐업실직자 일자리 정보 교육 실시

참고문헌

[학위논문]

박미희(2017), 독거노인 고독사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백석대학교.

최지연(2018), 고독사 예방 정책방안 연구,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서진혁(2013), 우리나라 고독사의 실태와 추이, 석사학위 논문, 경북대학교.

[단행본]

NHK 무연사회 프로젝트팀 지음 김범수 옮김, 무연사회, 남자의 고독사, 용오름 연암서가(2012)

성유진, 이수진, 오소영 지음, 남자 혼자 죽다-세상에 없는 죽음, 무연사 209인의 기록, 생각의 힘.(2017)

신현주, 한국사회의 변화하는 고독사 현상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학회, 학지사.(2018)

강기철, 손종윤, 고독사 통계에 대한 한일 비교 연구, 동아시아일본학회, 日本文化研究, 전남대학교, 경상대학교.(2017)

[정기간행물]

권혁남, 고독사에 관한 법과 윤리적 쟁점, 인문과학연구, 2013.

변미리, 서울특별시 1인 가구 대책 정책연구, 서울연구원, 2015.송인주, 고독사 실태 파악 및 지원방안 연구, 서울시복지재단, 2016.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 고독사 실태파악 및 지원방안 연구, 2016.

강은나, 이민홍, 우리나라 세대별 1인가구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2016.

송태민, 우리나라 세대별 자살 특성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언론 및 영상매체]

이투데이(2017.6.2.), '고독사' 늘어가는데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 서울시.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w.php?idxno=1498573#csidx84a6efe1a84d62ab2d5c0e20e39f5fe>에서 2019. 7. 12 검색.

한겨레(2018.3. 4), 고독사 예방, 다른 나라들은?(일본, 호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4580.html#csidx67e12e6b3103142b905a82daae69822에서 2019. 7. 12 검색.

매일경제(2019. 2. 2), 고독사 87%는 남성, 50~60세 장년층 가장 많아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2/70359/>에서 2019. 7. 15 검색.

SBS 뉴스 원본 링크 (2018. 2. 4), 고독사 중장년층이 문제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605017&plink=CO PYPASTE&cooper=SBSNEWSEND에서 2019. 7. 13 검색.

문화일보(2019. 2. 2), 고독사 87%는 남성, 노인층보다 50~60세 장년층이 더 많아.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202MW141848493318>에서 2019. 7. 9 검색.

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2018. 4), 서울시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

<https://opengov.seoul.go.kr/sanction/15006647>에서 2019. 7. 15 검색.

프레시안(2019. 8. 16), '고독사' 위험, 남의 일이 아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고립된 이웃을 향한 사회적 해법.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183654#09T0>에서 2019. 8. 16 검색.

논객.com(2018. 1. 22), ‘혼자 살다 죽는 ‘무연사회.’

<http://www.nongaek.com/news/articleView.html?idxno=34331>에서 2019. 7. 9 검색.

나눔 (2017. 10. 11), “고립사, 한국 사회에 길을 묻다①” 아흔 두 개의 ‘고독사 예방 조례’가 답할 수 있을까? <http://goodnanum.or.kr/?p=2281>에서 2019. 7. 9 검색.

한겨레신문 (2018. 3. 5.), “술병·이력서가 마지막 벼”...‘50대 고독사’ 가장 많은 한국.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4588.html#csidx2052893971031c8b5fe169592c3f4d0 에서 2019. 7. 10 검색.

한겨레신문 (2018. 3. 4), “고독사 예방”, 다른 나라들은?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4580.html#csidx39b6f0b50de668084b3eb82fe522716 에서 2019. 6. 10 검색.

연합뉴스 (2015. 5. 7), 늘어나는 '고독사' 막을 길 없나...지자체 대책마련 안간힘.

<https://www.yna.co.kr/view/AKR20150506173700053>에서 2019. 6. 5 검색.

프레시안 (2018. 1. 24), '고독사' 위험, 남의 일이 아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고립된 이웃을 향한 사회적 해법.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183654#09T0> 에서 2019. 6. 12 검색.

나눔(2017. 10. 11), “고립사, 한국 사회에 길을 묻다①” 아흔 두 개의 ‘고독사 예방 조례’가 답할 수 있을까. <http://goodnanum.or.kr/?p=2281> 에서 2019. 6. 10 검색.

서울신문 (2016. 9. 13), 5시간당 한명 꼴로 고독사, 민병두 의원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913500023> 에서 2019. 6. 11 검색.

하늘문화 (2019. 2. 2), 고독사 87%가 남성, 50~60세 장년층이 더 많아.

<http://www.memorialnews.net/news/article.html?no=11574> 에서 2019. 6. 10 검색.

연합뉴스 (2017. 5. 18), 무연고 사망자 2011년 693명→2016년 1천232명.

<https://www.yna.co.kr/view/AKR20170518058800017>에서 2019. 6. 11 검색.

머니투데이 (2019. 1.27), 은행원 55세 '명퇴', 53세 '희망퇴직'..."50세부터 퇴직 준비"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12511260899984> 에서 2019. 6. 17 검색.

한국일보 (2017. 9. 20), 직장인 체감 은퇴연령, 평균 50.2세.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709200934082639> 에서 2019. 6. 4 검색.

연합뉴스 (2018. 9. 28) '나 혼자 산다' 562만 만 명. 17년 새 2.5배로 늘어.

<https://www.yna.co.kr/view/AKR20180928068500002>에서 2019. 6. 12검색.

한겨레신문 (2018. 9. 28), 고독한 중년...청년·노인보다 비혼1인 가구 급증.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63728.html 에서 2019. 6. 18 검색.

헤럴드경제(2019. 7. 27), 정년제도 있으나 마나...직원 3명 중 1명만 정년 채워.

http://res.heraldm.com/content/image/2019/07/27/20190727000040_0.jpg 에서 2019. 8. 2 검색.

나눔(2017, 10, 11) “고립사, 한국 사회에 길을 묻다①” 아흔 두 개의 ‘고독사 예방 조례’가 답할 수 있을까? <http://goodn anum.or.kr/?p=2281> 에서 2019. 6. 10 검색.

오마이뉴스(19. 03.15), 무연사로부터 아무도 무연하지 않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18733&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에서 2019. 6. 26 검색.

[보도자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2019. 03. 22),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 2500명 돌파, 하루 7명꼴, 에이블뉴스.

정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2017. 10.17) 무연고사망자 통계 보도자료.

<http://goodn anum.or.kr/?p=2322>.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2018. 02.19.), 늘어나는 고독사...최근 4년간 무연고 사망자 57% 증가, 65세 이상 노인은 80% 급증.

<http://www.choidoja.com/community/15115>.

서울시, 서울시 고독사 예방종합대책, 2018.

서울시50플러스 2019-005
당사자연구 19-001

50+세대 고독사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과 사회적 해법 방안 연구

발행인 2019년 11월

발행인 김영대

편집인 양안나

연구자 안인숙 유기종 이영철 이홍주

발행처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복지타운 3층
02)460-5055

발행부서 정책연구센터

기획정리 오진수 송민혜 강민지

제작 (사)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 인쇄사업부

ISBN 979-11-89011-31-4

이 책의 판권은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연구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2019년 50+당사자연구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받아 수행되었으며, 보고서의 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인용할 시에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 시행한 '2019년 50+당사자연구 공모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의견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www.50plus.or.kr

서울시 50 플러스 2019-005
50+당사자연구 19-00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비매품/무료
93330

9 791189 011314
ISBN 979-11-89011-31-4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3층
02.460.5055
50@50plus.or.kr
50plus.or.kr
facebook.com/seoul50plus